

철학사

36 스피노자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저)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 주에는 스페인계 유대인 사상가인 베네딕트 스피노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스페인의 반유대주의 분위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네덜란드에서 살았지만, 그의 철학적 입장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스피노자의 저서를 읽어보면 그가 유신론자라기보다는 범신론자에 가깝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유대교의 신에 대한 믿음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스피노자의 역사적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 왜 우리가 그에게 그토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우리는 르네 데카르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스피노자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데카르트가 사용했던 방법을 계승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하학적 방법론처럼 정의와 공리에서 출발하여 논리적으로 정리와 결론을 증명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하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조했듯이 데카르트는 그의 명상록과 다른 저술에서 그것을 채택했고, 스피노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역사책에서도 데카르트주의자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그들 중 일부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어쨌든 스피노자는 이러한 방법론 때문에 데카르트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불과 30세였던 1663년에 발표한 첫 철학 저서는 흥미로운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데카르트의 철학 원리를 기하학적 방식으로 증명한 1부와 2부"였습니다. 그는 기하학 교과서의 형식을 빌려 정의, 공리, 정리, 증명 등을 문자 그대로 풀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읽기 시작했다면 (추수감사절 연휴에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거기서도 정확히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정의와 공리로 시작해서 정리를 제시하고 증명하며, 각 정리 후에는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QED, quod erat demonstratum"(증명된 바와 같음)이라고 씁니다.

현대 기하학 교과서 어디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기하학 교과서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좌표계

방법이 철저하게 적용됐죠. 스피노자에 관한 펙킨 출판사의 책을 쓴 스투어트 햄프셔라는 작가가 그 방법을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흥미로울 거예요.

스피노자는 자신의 말, 특히 신과 그의 속성에 관한 말은 결코 일상적인, 즉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자신이 정의한 특별한 의미로만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스피노자가 실체, 정신, 신, 선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의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이러한 용어들을 일상적인 언어적 의미가 아닌, 오직 그가 정의한 특별한 의미로만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철학적인 사람들은 신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과 우주 창조에 관해 쓰여지고 말해진 거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감각에 너무 얽매어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합리주의자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선형적 지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데카르트 철학에 대한 초기 설명과 그의 위대한 결정적 저서인 『윤리학』을 명제와 그 뒷받침하는 증명, 보조정리, 그리고 따름정리의 연속이라는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저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제시할 때, 일반적인 산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설득하는 숨겨진 수단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수사적인 기교도 없이, 오직 논리적인 형식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철학이 유클리드의 원론처럼 상상력에 호소하지 않고,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비인격적이며 자유로운 방식으로 제시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의 방법론이며, 그의 주장을 완전히 이해 하려면 그의 방식을 직접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인간 지식에 대한 권위의 위기가 존재했던 시대였고, 회의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으며, 베이컨과 데카르트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정한 과학적 지식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던 시대였습니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뒤를 이어 지식이 공리적 진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중세 시대에서 계승된 과학 중 유일하게 다른 과학들만큼 회의주의적 의심에 시달리지 않았던 수학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첫 번째 점이며, 스피노자는 이러한 방법론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라이프니츠를 살펴볼 때도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이프니츠는 기하학 교과서와 같은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치지 않았지만, 스피노자와 같은 종류의 합리주의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스피노자 가 데카르트를 매우 존경하고 데카르트의 특정 입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데카르트의 전반적인 관점을 매우 명확하게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 그리고 신과 자연의 이원론이라는 두 가지 의미에서 이원론자였습니다. 스피노자는 이 두 가지 이원론 모두를 거부합니다.

스피노자는 형이상학적 일원론자입니다. 유대-기독교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형이상학적 일원론자를 접하지 못했죠. 플로티누스와 파르메니데스는 만났지만요. 만약 우리가 스토아 학파에서 발견되는 이중적 측면의 일원론, 즉 모든 사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개념을 형이상학적 일원론에 포함시킨다면, 하나는 이성적이고 지적인 질서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하는 물질적 요소, 불타는 증기, 즉 로고스입니다. 스토아 학파에 로고스와 물질이 있듯이, 스피노자에게서도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과 자연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두 단어입니다.

신은 이해 가능성, 즉 로고스 측면을 강조하고, 자연은 운동하는 물질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과 유사한 틀이 나타납니다. 데카르트가 제시했던 유신론적 형이상학과는 달리, 스피노자는 범신론적 형이상학을 제시합니다. 신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신이기 때문에, 이해 가능한 질서와 운동하는 물질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사물의 두 측면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가진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정신과 육체는 하나의 사물의 두 가지 측면 또는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중적 관점의 일원론을 고수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수업에 남아 있는 학생들에게 데카르트의 윤리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데카르트가 스토아 학파와 유사한 윤리학, 즉 이성이 명확하고 구별되는 관념을 통해 정념을 없애고 감정을 제어하며 감정을 이성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윤리학을 제시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스토아 학파적 윤리학은 스피노자에게까지 이어지는데, 스피노자가 데카르트로부터 계승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윤리적 접근 방식이며, 다만 그는 이를 훨씬 더 명시적으로 드러냅니다.

매우 체계적으로 다루는 반면, 데카르트는 윤리학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피노자가 윤리학에 대해 체계적으로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스토아 철학적 윤리학을 스토아 철학적 형이상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는 스토아 철학적 윤리학을 스토아 철학적 형이상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아식 형이상학이라고 말할 때, 저는 자연 범신론을 의미합니다. 자연은 신성합니다. 스토아학파는 자연을 섭리로 여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피노자는 19세기에 사상을 전수했습니다. 그는 17세기 사람이지만, 일원론적 접근 방식, 범신론적 접근 방식, 즉 자연 범신론을 19세기 낭만주의자들에게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헤겔이나 슈라이어마허 같은 학자들이 스피노자와 그의 업적을 매우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낭만주의 문학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콜리지, 괴테, 매튜 아놀드 같은 작가들이 스피노자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는지 아실 겁니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자연 범신론을 19세기 낭만주의자들에게 전수하는 역사적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와 같은 합리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그들은 감정을 제어하는 이성의 윤리를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승하고 계승하는 것은 범신론적 본성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두 번째 유형의 특징인데, 데카르트 자신의 입장과 그가 후대에 전한 내용에 대한 수정과 연속성입니다 .

이제 이는 곧바로 세 번째 역사적 중요성, 즉 전통 종교에 대한 그의 합리주의적 비판의 영향력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경우, 전통 유대교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는 성서 비평 강좌에서 구약 문헌에 대한 역사 비평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종종 언급됩니다.

Tractatus Theologico-Politicus 라는 제목의 작품을 출판했습니다 . 정치신학 논문, 에세이. Tractatus Theologico-Politicus.

예를 들어, 그는 특별히 계시된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합리주의적 범신론자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바로, 이러한 수학적 방법에 확신이 있다면, 주어진 공리로부터 이성만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진리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방법의 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범신론자에게 있어 신의 자기 계시라는 특별한 행위는 무의미합니다. 신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이 어떤 존재에게 자기 계시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범신론적 체계에서는 흔히 내재주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것이 나타납니다. 즉, 모든 것이 신이고 신이 모든 것이라면, 신에게 귀속되는 모든 것은 단순히 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덕분인데, 이는 하나님이 자연

안에 계시고 자연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이것이 바로 존재의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신적 계시란 있을 수 없습니다.

범신론자에게 종교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스피노자에게 종교는 올바른 삶의 방식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그의 유대교는 오늘날 개혁 유대교로 여겨지는 것과 유사하다.

이는 정통 유대교의 초자연주의 신학을 배제하고 역사적 유대교의 가치와 도덕적 관심사를 중시하는 종교적 인본주의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상징의 역할도 변화합니다. 종교적 언어와 의식은 더 이상 전통적인 신과 그의 위대한 행적을 묘사하거나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상징일 뿐입니다. 공동체주의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상상력이 풍부한 언어, 이야기의 언어, 유산의 언어를 제공하여 특정한 도덕적 이상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사 신학은 이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19세기 신학에 미친 이러한 영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2학기에 더 많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CCJ 웹이 쓴 아주 가치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1850년 이후 영국의 종교 사상 연구》라는 책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피노자의 전통 종교에 대한 합리주의적 비판의 영향을 받은 종교 사상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이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밥? 스피노자가 이 사상의 강력한 옹호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 되나요? 완전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네, 제가 너무 관대했던 것 같네요. 그가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지,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나 봐요.

네, 그는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진행하다 보면 더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넨, 음, 저도 좀 더 기다려보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자, 그 짧은 시간이 금요일이 될 수도 있으니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세요. 데이비드? 네, 알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데카르트에 대해 우리가 뭘 했는지, 나머지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데카르트의 정념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지금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슈툼프가 데카르트의 감정과 정념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의 감정론은 감정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은 감정에 수반되는 명료함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명료하고 명확한 사고, 즉 분명하고 뚜렷한 관념을 갖게 되면 감정에 따른 혼란이 사라지고 감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명료함입니다.

자, 그 말을 일축하기 전에, 심리 상담사, 어쩌면 정신분석가가 당신이 무언가를 기억해내도록 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 더 명확하게 생각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즉, 사고의 명료함을 통해 감정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들이 보는 것은 바로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이제, 데카르트의 의지와 지성에 대한 논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오류에 관해 지성보다 앞서 나가는 의지를 가리키며, 이러한 의지는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류는 일종의 인식적 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악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에 따르면, 의지를 억제하는 것, 즉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이라고 알고 있는 것의 한계 안에서 의지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신과 신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은 신체와 별개의 실체이며, 정념은 물리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신이 신체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신이 신체적 정념으로부터 결정론적인 인과관계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신은 명료함과 명확함을 통해 독립성을 주장하고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한 네 번째는, 그가 방법론에 대한 담론에서 회의주의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시작하기 직전에,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나아가면서 따를 것이라고 말하는 ‘잠정적 도덕’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잠정적 도덕은 본질적으로 바로 이러한 종류의 것입니다.

그는 판단을 자제하고, 행동을 자제하며, 자신이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성이 감정을 제어하고, 의지를 인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다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것이 정신에 의해 자극된다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아니요, 마음속에 그것들에 대한 의식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심신의 상호작용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지의 결정이 신체적 변화와 행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몸 안의 동물적 본능의 움직임인 감정 또한 마음속에 의식적인 부산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적인 부산물은 관념이지만, 혼란스러운 관념입니다.

우발적인 생각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거나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합리주의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에 의해 지배받는다. 그래야만 한다. 감정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 스피노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스피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가 자유의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는 결정론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스피노자의 사상에서 우리는 범신론적 관점에서 이어지는 다소 익숙한 패러다임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누스에게서도 이미 나타난 현상입니다. 범신론은 필연적으로 결정론으로 귀결됩니다.

분리에서 오는 자유가 없을 겁니다. 자율적인 체제가 되죠. 그러면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라면 악은 무슨 지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구분이 모호해지죠. 플로티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현론, 그리고 그 이후의 단계론 등을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오늘날 범신론은 동양 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양의 영향력이 서양, 적어도 이 나라 서부 지역에서 다시금 부상하고 있는 만큼, 뉴에이지 운동은 본질적으로 범신론적입니다.

뉴에이지 관련 저술들이 모두 체계적이거나 세심하게 설명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뉴에이지가 일종의 범신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단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피노자의 범신론보다는 19세기에 더 가까운, 좀 더 낭만적으로 미화된 형태의 범신론이죠. 하지만 공통적인 패러다임이 나타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의 역사적 중요성에서 제가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부른 것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일반적인 특징들은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반적인 특징은 물론 신과 자연이 하나라는 견해입니다.

신과 자연은 하나이며 동일하다. 이제 여러분은 그가 실체 개념을 통해 그 주장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방법론적인 의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실체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그가 실체를 정의하는 방식은 신과 자연이 하나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신과 자연이 하나라면,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신 안에는 사유와 확장성이 모두 존재하며, 신은 무한합니다.

확장성. 마치 신이 우주 전체인 것처럼. 하지만 동시에 신은 사상에 있어서 무한하다.

그리고 여기서 플라톤 전통이나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 개념, 즉 사고와 확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께 알려진 두 가지 속성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속성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속성은 무한한 사고 방식과 유한한 사고 방식 모두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무한한 사고 방식이 바로 신입니다.

신의 마음. 무한한 확장 양식이 바로 자연이다. 그 모든 것 안에 광대함이 담겨 있다.

하지만 유한한 사고 방식은 당신과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확장 방식 또한 당신과 나의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것들은 실체가 아닙니다. 마음은 몸과 분리된 실체가 아니며, 몸 또한 마음과 분리된 실체가 아닙니다.

당신과 나의 몸은 하나님과 분리된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존재의 유한한 양상일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분의 생각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신의 자의식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의미에서 분리된 실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별 가능한 속성들이 있을 뿐입니다.

구별 가능한 모드. 당신은 당신의 몸과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체의 구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상의 구분입니다. 하나의 유한한 양상과 다른 유한한 양상의 구분입니다.

자, 유한과 무한의 이러한 구분에서, 원하신다면 플라톤의 이분법, 즉 영원과 시간, 무한과 유한의 메아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저 메아리일 뿐입니다.

플라톤은 자연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겁니다. 이해되지요? 물론 플라톤 자신의 생각은 영원했지만, 자연의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물리적 의미의 자연. 그래서 플라톤적인 영향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영역, 형상, 그리고 개별적인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가 말하는 것은 동일한 영역의 유한한 양상과 무한한 양상입니다. 즉, 자연인 신의 유한한 양상과 무한한 양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영원한 문제와 영원한 주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그의 이중적 측면 일원론이 이 모든 이원성의 범위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 어느 것도 두 개의 별개의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신과 자연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사고와 연장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자유와 결정론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선과 악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성과 감정도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하나의 현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특징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용어는 실체, 속성, 그리고 양식입니다.

알겠죠? 실체, 속성, 그리고 양식. 이게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이 점을 확실히 이해했는지 확인하세요.

실체는 하나뿐이다. 그러나 하나의 실체는 적어도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속성은 무한한 양상뿐 아니라 유한한 양상에서도 식별 가능하다.

당신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유한한 존재 양식일 뿐입니다. 당신의 사고는 단지 하나의 존재가 가진 사고라는 속성의 유한한 양식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존재.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무한한 사고를 유한하게 변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체, 속성, 양상.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이 그림이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보이는 구분선을 아래쪽으로 쭉 연장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몸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것들은 개별적인 것들의 영역에 속하겠죠. 스피노자는 보편자에 대해 실재론자일까요, 아니면 단지 개념주의자일까요? 저는 단지 개념주의자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말로 보편적인 관점, 추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네, 그는 명목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재론자가 보편적 원리가 존재하며, 그 원리가 개별적인 것들과 어떤 식으로든 분리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개념주의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토아 철학적인 관점이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실체, 속성, 양상. 셋. 두 번째 일반적인 특징은 그의 인식론과 관련이 있다.

그의 인식론이요. 제가 계속 말해왔듯이 그는 합리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식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지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견이고, 둘째는 추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관입니다. 이것 또한 데카르트의 사상과 매우 유사하게 들립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저서 『이성의 향상』에서 이러한 세 가지 구분을 제시합니다.

이해력 향상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 공항 서점에서 우연히 베네딕트 스피노자의 『마음을 수양하는 법』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번역하면 마치 '방법을 알려주는 책'처럼 되어버립니다. 아마 그 책에 현혹되어 구매한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내가 뭘 샀지?' 하고 의아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여전히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윤리학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선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127페이지를 한번 살펴 보십시오. 127페이지 말입니다.

그의 윤리학 제2부 명제 40에 첨부된 주석 2에서, 127페이지 첫 번째 열의 주석 2에 따르면, 그는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구분한다.

세로줄 중간쯤에는 첫 번째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이텔릭체로 표시되어 있죠. 의견 또는 상상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바로 위의 1과 2를 가리킵니다. 의견은 개별적인 것에 대한 단편적인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2는 상징이나 단어가 상상력에 불러일으키는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의견이나 상상력이고, 두 번째는 이성 또는 제2의 지식입니다.

그가 말했듯이, 우리에게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개념, 즉 사물의 속성에 대한 적절한 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편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진리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직관은 신의 속성의 절대적 본질에 대한 적절한 관념에서 비롯됩니다.

사물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는 것. 여기서 그는 분명히 절대적으로 확실한, 완전히 의심할 여지가 없는 어떤 것에 대한 직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이를 명확하고 뚜렷한 관념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적절한 관념'이라는 표현을 가장 자주 사용합니다.

직관적으로 확실한 것을 언급하고 싶을 때 그렇습니다. 데카르트가 '명백하고 분명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방식은 모든 의심을 넘어 명확하고

분명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표현을 적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고, 직관적으로 확실합니다. 적절한 생각입니다.

자, 이제 그 점을 잘 살펴보세요. '충분한 아이디어'라는 개념 말입니다. 그는 분명히 의견이나 상상력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얻은 지식은 단편적이고, 혼란스럽고,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발적인 문제만을 다룬다. 관습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언어의 불법적인 연상 작용과 관련이 있다. 종교적 언어가 바로 그런 식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의 합리주의적 종교 및 종교 언어 비판은 실제로 종교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언어의 종류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는 유추의 언어라고 불려 왔습니다. 그러나 유추는 유클리드가 원했던 문자 그대로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그건 수학적 추론처럼 명확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그런 종류의 언어나 지식에는 인내심이 없죠. 따라서 그의 관심사는 직관적으로 확실한, 즉 자명한,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지식을 얻는 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가 오류를 명백히 명확성과 불분명함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명확성과 불분명함이 부족한 것에 동의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데카르트의 사상과 비슷하게 들리네요.

그렇다면, 그가 기하학적 탐구, 즉 그의 방법론을 시작하려면 당연히 몇 가지 적절한 개념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연역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공리에 대한 직관적인 확신을 다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려는 것은 적절한 개념에서 또 다른 적절한 개념으로, 그리고 다시 적절한 개념으로 나아가는 추론의 사슬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윤리학에서 나열하고 번호를 매긴 수백 개의 명제 하나하나가 논리적으로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직관적으로 확실한 것에서 시작해서 증명 가능한 확실한 것들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하학적 체계에서처럼, 그는 증명을 진행하면서 정의나 공리, 또는 이미 증명된 이전 명제, 혹은 명시적으로 도출된 이전 명제의 귀결 등을 참조합니다.

그래서 그의 의도대로라면 전체 내용이 그런 수학적 엄밀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정의와 공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공리는 정말 공리적인가? 정의는 자의적인가? 옹호할 만한가?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인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우리가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인가? 내가 그런 식으로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한다면, 그게 내가 사용하는 방식인 것이다. 미친 모자장수든 아니든, 꽤 중요한 문제다. 언어철학은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중요한 학문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홉스의 명목론에서 그것을 접했습니다. 제가 현재 홉스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주 전에 홉스를 공부한 이후에도 다른 견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사람들이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홉스가 말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사고는 정의에서 시작됩니다.

명목론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관념이 아니라 단어에서 사고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두 가지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체, 속성, 그리고 양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은 것들, 즉 의견, 이성, 직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이중적인 측면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스피노자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과 자연. 선집 110페이지를 펴서 정의들을 살펴보십시오. 스피노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연히 이 모든 정의와 공리를 다시 검토하고 모든 증명을 다시 풀어봐야 할 것입니다.

코프먼은 많은 부분을 생략했지만, 어쨌든 이것은 선별된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증명 한두 가지만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여러분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발생하는 것이란, 본질이 존재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본성이 오직 존재로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스콜라 철학적 방식인데, 신의 본질은 존재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카르트가 『성찰』 5장에서 신의 존재를 주장한 근거였습니다. 신의 본질이 존재를 포함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그의 존재론적 논증 말입니다. 이제 정의 3을 보십시오. 여기서 실체란 그 자체로 존재하며 그 자체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 그것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 그것은 그 자체를 통해 이해된다.

다른 모든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꽤 괜찮죠. 여기까지는 데카르트적 정의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절에서 그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이제 그는 그 정의를 다른 말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실체'란 다른 어떤 개념과도 독립적으로 하나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 하지만 다른 어떤 것과도 독립적으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들로 이어지는 논리적 함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요소들에 대한 논리적 가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실체를 다른 실체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것, 또는 다른 실체가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실체를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1번과 3번 정의를 합쳐 보세요.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 즉, 각각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속성을 지닌 실체이십니다. 무한한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속성은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합니다.

네, 존재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는 존재인 것입니다. 필연적인 존재죠. 따라서 이러한 정의들이 갖는 의미가 바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정의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분명히 예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명제를 보세요. 첫 번째 명제 말입니다.

실체는 본질적으로 변형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이는 실체와 양태에 대한 당신의 정의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두 번째 명제.

속성이 서로 다른 두 물질은 공통점이 없다. 이는 세 번째 정의에서 명백하다. 각각은 그 자체로 존재해야 하고, 그 자체를 통해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명제 3.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들은 다른 것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데카르트, 미안하지만 그게 바로 심신 문제의 핵심이었지, 그렇지 않아?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들은 서로의 원인이 될 수 없어. 알겠어? 그럼 다섯 번째 명제. 우주에는 동일한 본성이나 속성을 가진 두 개 이상의 물질이 존재할 수 없어.

명제 6. 한 물질은 다른 물질에 의해 생성될 수 없다. 자, 한번 살펴보자.

여섯 번째 명제에 이르면, 신과 자연은 서로 분리된 두 실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명제는 실체가 자존한다는 것이고, 여덟 번째 명제는 모든 실체가 필연적인 존재, 즉 자존한다는 것입니다.

명제 11은 신 또는 실체가 각각 본질적인 무한한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즉,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제 14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실체도 존재하거나 생각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번째 명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생각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오직 하나뿐이고, 실체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신이냐 자연이냐. 그렇죠? 결국 신과 자연은 신이냐 자연이 되는 겁니다. 그가 사용한 구절, *Deus ewei natura*, 즉 신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